

불량한 임신예측을 위한 임신 제2분기 inhibin-A 측정의 유용성

이경훈, 김석영, 이순표, 손유경, 안옥주

가천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산부인과

목적 : 임신 제2분기 선별검사로 시행되는 QUAD test를 구성하는 호르몬에서 태반유래의 inhibin-A의 농도의 변화를 통해서 임신결과를 예측하는데 유용성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.

연구 방법 : 임신중기 혈중 inhibin-A와 hCG을 측정하여 임신결과를 알고 있는 131명의 임신부에서 inhibin-A 농도 2.0 MoM을 기준으로 높은 군과 낮은 군에서 각각 발생한 조산, 저출생체중아, 임신성 고혈압, 유산, 사산의 빈도를 비교하였다.

결과 : 총 131명의 임신결과에서 조산 9명(6.9%), 저출생체중아 13명(9.9%), 임신성 고혈압 질환을 가진 경우가 8명(6.1%), 유산 3명(2.3%), 사산 2명(1.5%)이 있었다. hCG만이 2.0 MoM 이상인 경우는 9예(6.9%), inhibin-A만이 2.0 MoM 이상인 경우는 5예(3.8%) 있었으며, hCG와 inhibin-A 두 호르몬 모두 2.0 MoM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가 5예(3.5%) 있었다. hCG 및 AFP에서는 2.0 MoM 미만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에서 발생한 불량한 임신의 빈도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. 하지만 inhibin-A만이 2.0 MoM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(n=5)에는 조산($p=0.05$; Odds ratio 9.6, CI 1.34-67.3) 및 임신성 고혈압 질환($p=0.04$; Odds ratio 11.3, CI 1.5-81.2)과의 연관성이 증가하였다. AFP와 hCG가 모두 2.0 MoM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(n=2)나, hCG와 inhibin-A가 모두 2.0 MoM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(n=5) 모두에서 불량한 임신과의 연관성이 없었다.

결론 : 임신 제2분기에 시행되는 Quad test marker들 중에 inhibin-A의 혈중농도만이 조산 및 고혈압 질환과 같은 불량한 임신과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된다.